



#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 요약

■ 올해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들은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임.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도적 한계, 금융거래의 제약, 취약한 보안기술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인 카카오와 캠프모바일<sup>1)</sup>은 올해 3/4분기 중으로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

- 카카오는 국내 은행사, 결제대행사, 증권사 등과의 금융 업무 제휴를 통해 소액 송금, 온라인 쇼핑·오프라인 매장 결제, 주식 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등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IT 플랫폼인 카오톡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예정
- 반면, 캠프모바일은 동사 IT 플랫폼인 밴드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제대행사 제휴를 통한 소액 송금 기능 제공을 검토

1) 네이버의 모바일 분야 자회사로서 모임관리 앱 ‘밴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표 1〉 국내 모바일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출시 현황

기업	플랫폼	금융서비스	협력사	세부 내용
카카오	뱅크월렛	송금	은행사	카카오톡 이용자간 소액 송금(한도 일 10만 원)
		지급결제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 결제(한도 일 30만 원)
	카카오페이	지급결제	카드사 결제대행사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 결제
	증권플러스	자산관리	증권사	주식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서비스
캠프모바일	밴드	송금	결제대행사	밴드 회원간 회비 송금

자료: 카카오, 캠프모바일.

■ 이러한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도적 한계, 금융거래의 제약,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이 강하여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에 제한<sup>2)</sup>이 있음.
- 동일한 IT 플랫폼을 가입한 회원끼리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결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와 결제가맹점이 많지 않은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음.
-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의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음.

■ 하지만,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 이미 전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sup>3)</sup> 기업이라 불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단순 지급결제에서부터 송금, 대출 및 투자 중개, 보험 판매 등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진출국 또한 확대하고 있음.<sup>4)</sup>

2)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뱅크월렛 카카오는 일 50만 원의 선불충전 한도와 일 10만 원의 송금 한도가 있음.

3)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일컫음.

4)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PayPal)은 유럽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은행업 인가를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의 발표<sup>5)</sup>에 의하면,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 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임.
  - 2014년 6월 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 수는 9,949만 명으로 전분기말대비 1.8% 증가하였지만,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의 등록고객 수는 4,298만 명으로 전분기말대비 6.5% 증가하여 전체 증가세를 주도함.
- 전통적 방식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과 비교해 볼 때, 핀테크 기업들은 앞선 IT인프라와 방대한 데이터의 보유, 대규모 가입자 기반, 빠른 기술적응 역량, 간단한 거래 절차, 저비용체제, 온라인 중심의 영업채널, 높은 정보의 투명성 등의 경쟁력을 가짐.
  - 특히, 기존 IT인프라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여 고객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최근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 해소의 여지를 남김.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한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채널 전략과 새로운 보험시장 발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IT인프라와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을 통해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 보험회사를 확보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 전자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까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알리바바와 제휴 관계를 맺은 보험회사는 20개에 이르고, 금년 2월 알리바바는 중국평안보험 및 텐센트와 합작으로 중국 최초의 인터넷 보험회사인 중안보험 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인터넷채널을 통해 보험판매를 시작함.
-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해야 함.
  - 따라서 전자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큼. **kiri**

5) 2014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2014. 8. 19).